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서면안건

2024. 8.

관계기관 합동

순 서

- I.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1
- II. 외국인 보험가입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 2
- III.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추진..... 3
- IV. 건보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 5

1.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등 시니어케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장기간 시설에 입소(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 요양기관과 재가요양기관으로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 의료인력 채용 등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한 상황

*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경영건전성,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업무(보험업법 §11의2)

⇒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정체로 인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곤란

【개선방안】

-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부수업무로 영위를 허용

* 보험업 본연적 역할인 노후보장 등에 기여

- 다만, 인력·물적시설 등 신규투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통해서도 설치 가능하므로 시설 요양기관에 비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

【기대효과】

-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재가요양기관)으로 보험회사에 성장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공급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 등 효용 제고

II.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주요 개선방안】

- ①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 위한 외국어 안내자료 마련

-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가입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자료를 주요 외국어로 제공(중국어, 베트남어 등)

*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개요

구분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구분 상해 질병	사망 3천만원 1.5천만원
	장해 최대 3천만원 1.5천만원	
근거	외국인고용법 §23	외국인고용법 §15

- ② 원활한 보험가입 위한 외국어 상담 체계 마련

- 보험가입 관련 외국어 지원 인력 Pool을 보험사별로 체계화하여 고객 요청 시 연결·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 ③ 외국인 가입상품 합리적 개선

- 외국인 보험가입 관련 도덕적 해이(부실 고지 등) 방지 방안* 마련

* 외국인 전용 상품 개발, 외국인 비자 유형별 인수기준 재검토, 질병담보 가입요건 강화, 건강정보 제공 할인특약 활성화 등 검토

- ④ 외국인 보험료 절감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 외국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외보험 가입 경력 인정에 필요한 증명서 안내 강화(해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향후계획】

- 추가 보험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방안 마련 및 시행

외국인계좌 개설 개선방안은 「은행권 혁신 TF」에서 검토 예정

Ⅲ. 항공기 지연 지수(指數)형 보험 도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종식선언 후, 해외 여행 증가에 따라 항공 운송 불이행·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상황
- 항공편이 결항·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음료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하는 상품은 판매 중이나
 - 지급보험금 대부분이 가입금액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 증빙자료(항공사 확인증, 영수증) 준비 등에 따른 불편 존재

【개선방안】

- 별도 자료제출 없이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 개발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
 - 국내 공항*에서 출발(해외 공항 출발은 제외)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 지급
 - * 인천국제공항 출발 시 적용되는 참조순보험요율 보험사 제공(6월), 8월 중 국내 공공항 출발 시 적용되는 단일 요율 보험사 제시 예정
- 가입자가 동종 상품에 다수 가입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 상품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항공기 지연 지수형상품 개발시 주요 고려사항 >

- (가입 대상)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에만 중복가입이 확인되므로, 여행자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도입
- (보험 가입) 도덕적해이(예시: 기상예보를 통한 태풍접근 예상 등)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가능기간을 출국 7일 이전까지로 제한*
 - * 단, 항공편 취소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가입기간 운용도 가능
- (모럴해저드 방지) 보험사는 신규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인수기준을 수립하고, 사후 중복가입 확인 시 합리적인 지급방식 마련

참고1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개요

- (개요)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보상 수준)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연시간별 2만원씩 최대 10만원 지급(결항시 10만원)

< 항공기 출발 결항 및 지연시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

지연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및 결항
누적 보험금 지급액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주) (예시)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지연 시 4만원 지급 후, 추가 1시간 지연 시마다(4시간 이후는 2시간 지연 시) 2만원씩 지급하여 누적 최대 10만원 지급

- (편의성)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
- (보험료 절감) 손해조사 업무 감소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 *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실손형 보험의 약 32.4% 수준임
- (보험료 수준) 항공기 출발 1회당 보험료*는 1,000~1,500원 수준
 - *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실손형과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비교

구분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험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보상 조건	·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 항공편 결항	·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 · 항공편 결항
보험금 지급액	·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 통화 비용, 숙박비 및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서 증빙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손해액	· 결항 및 지연 시간대별로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
보험금 청구	· 항공기 지연/결항 확인서 · 항공기 탑승권 사본 · 비용발생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등	· 보험사가 항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여부 확인 시 별도 증빙 제출 필요 없음

IV.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 위험률 개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개별 보험사에서 공단에 데이터 공개 요청**
 - * 공단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 중
- 공단은 보험사 데이터 신청 급증으로 다소 엄격한 **자료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요청을 제한***
 - * 1인당 신청 가능건수를 1건으로 제한, 질병코드를 3가지로 제한 등 신청범위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도입
- 제한적 데이터로는 위험률 개발이 어려운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통한 쏠 상병통계* 입수 및 보험사 제공**을 건의
 - *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로 개인을 특정군으로 묶어 집단의 수치로 기록된 질병 관련 통계
- 현재 공단 운영규정으로 **보험개발원이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제3자)에게 제공은 제한 중**

【개선방안】

- 개발원이 **상병통계를 입수하여 보험사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 추진**
 - 개발원은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아닌 **보험업법 제176조 제11항**에 근거하여 공단에 **상병통계 요청***
 - *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한 장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 **원활한 통계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간 세부 절차·방법 등 추가 협의 예정**